

추석이 다가오니...

채소·과일값 폭등

잘못된 업무관행·실패·낭비

사내 고해성사 239건 '면책'

10 광주일보
제17553호 2006년 9월 15일 금요일

주가	환율	금리
+25.62 1,358.75 (코스피지수)	-1.30 957.70 (원/달러)	+0.01 4.72%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00.95 (+8.50)	
다우 (13일)	11,543.32 (+45.23)	
나스닥 (13일)	2,227.67 (+11.85)	
넷케이	15,942.39 (+192.34)	
엔-달러 환율 (도코 17:00기준)	117.64엔 (+1.15)	
유로 달러 환율	1.2682달러 (-0.03)	
3년만기 회사채	5.05% (+0.01)	
클레디	4.48% (+0.01)	



기아차 광주공장 학교에 차량 18대 기증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및 고등학교에 18대의 교육·실습용 차량을 기증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4일 서구 내방동 기아차 광주공장 연구소 앞에서 '교육·실습용 차량 기증식'을 갖고 광주공장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뉴캐렌스 9대와 스포티지 9대 등 18대의 차량을 조선이공대, 송원대, 전남공고, 화순실고, 장흥실고 등 자동차 관련학과가 있는 지역 9개 대학 및 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지난 5월에도 광주교통정보학교에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기탁한 광주공장은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남대에 실습용 차량을, 성화대학과 송원대학에 자동차 교육기자재를, 광주전자공고에 6천만원 상당의 엔진관련 기자재를 각각 기증하는 꾸준한 지원활동을 펴왔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금호중국어기술연구소 준공

금호타이어는 14일 중국 텐진시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과 반하이신취(濱海新區) 피렌스 주임 등 한중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영국에 이어 금호중국어기술연구소(KCTC·Kumho China Technical Center)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연구소는 전세계 타이어산업의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텐진시 경제기술개발구 서구 북대구에 약 3천600만 달러를 투자, 대지 6천700평(2만2천㎡), 연건평 3천600평(1만2천㎡) 규모로 건립됐다.

연구동·시험동 등에 첨단 타이어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리 시험실, 화학 및 기기분석 시험실, 타이어 완제품 평가 시험실, 화상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현지 채용인원을 포함, 110여명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고추 등 최고 두 배 이상 올라 가게 '주름살'

배추와 무·대파 등 채소값과 과일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추석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주요 채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지에서 물량조절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 풍암동 서부도매시장에 따르면 14일 현재 배추(10kg) 도매가격은 9천원으로, 전달 평균(7천610원)과 하루전(8천원)보다 각각 18%, 12.5% 올랐다. 무(20kg)도 전달 1만441원에서 15% 오른 1만2천원에 거래됐다.

특히 마른고추(6kg)는 전달 평균 2천723원에서 8천700원으로 무려 220%나 올라 추석을 앞둔 주부들을 잔뜩 우울하게 하고 있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채소가격은 지난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이어진 폭우와 폭염으로 8월 내내 강세를 보였고, 9월 들어서도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실 및 과채류 가격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토마토(10kg)는 1만7천273원에서 3만1천500원으로 무려 82%나 폭등했으며, 방울토마토(5kg)는 1만4천795원→1만8천원(21.6%), 포도(5kg)는 1만1천100원→1만2천원(9%), 자두(10kg)는 2만764원→3만3천원(58.9%)으로 올랐다.

에호박(8kg)은 전달 8천955원에서 13일 1만3천500원으로 50.7% 뛰었다.

신세계 이마트 소매가격의 경우 배추(1포기) 3천500원→4천원(14.3%), 무(1개) 2천500원→3천원(20%), 사과(1개) 1천500원→1천800원(20%), 배(1

개) 4천500원→5천원(11.1%)으로 올랐다.

시장에 나온 주부들은 채소값 폭등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K모(33·북구 두암동)씨는 "반찬걱정 때문에 도매시장에 나왔다가 배추가격을 보고 너무 놀랐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분간 배추김치 없이 상을 차려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유통업체와 도매상들은 가을배추 등이 출하되는 다음달 말까지 배추를 비롯한 채소값과 과일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다가오는 추석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육류와 과일 등은 장마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채소값과 과일값의 상승은 계속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고객 편에 서서 혁신해야 위기 타개”

광주·전남여성경제인협회

영호남 여성 CEO 연수

기업의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한 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고객, 효율 및 이익, 실행의 편에 서서 스스로 혁신해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양인희)가 14일 담양리조트에서 개최한 '영호남 여성CEO 경영혁신연수'에 감사로 참여한 (주)KPCC 정광열 대표는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전략'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또 "공급자 중심의 대량생산과 판매를 버리고 고객중심으로 소량을 생산, 판매해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발상이 중요하다"며 "변화를 읽어내고 리드하는 개선의 행동을 갖춘 인재 양성도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웃음요가연구소장의 '경영혁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영호남 여성CEO 경영혁신연수에 참가한 180여명의 회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을 위한 웃음요가' 강연도 이어졌다.

또 강순숙 다과원의 '전통문화체험'이 마련됐으며 대구·경북지회 류병선(영도벨벳) 회원과 광주·전남지회 조정숙(코코하브) 회원의 경영사례 발표, 화합의 시간 등이 오후 7시30분까지 계속됐다.

한편 이날 혁신연수에는 광주·전남지

역을 비롯해 전북, 대구·경북, 울산지역 여성CEO와 유창종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김창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포스코, 윤리경영회의

'정직하고 솔직하게 일해야 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리경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포스코가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실패나 낭비 사례 등 직원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잘못된 점을 자진 신고받고 개선을 추진하면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대사면'을 단행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이구택 회장 주재로 윤리경영회의를 열어 각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밝힌 239건의 잘못된 사례에 대해 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사례는 지난 6월 말부터 임직원들부터 업무와 관련해 실패 사례나 잘못된 업무 관행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받은 것. 그 결과 '숨겨진 실패'나 '낭비를 유발하는 잘못된 업무관행' 등 총 373건이 접

수됐는데 대표적인 실패 유형은 의욕이 앞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행한 투자나 자재구매, 시스템 개발 등이었다.

사면된 사례는 투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시그마 과제 78건, 자재 22건, 지표 12건, 시스템 9건, 기타 8건 등이었으며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80건은 향후에 별도로 면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면책 결정은 과거의 잘못된 의사 결정이나 관행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낭비가 생기는 점들을 밝혀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한편 사내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책임 문제 때문에 잘못된 업무 관행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직원 개개인은 물론 조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열병합발전 인지도 높여야”

에너지관리공단 토론회

소형 열병합발전의 보급확성을 위해 인지도 향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임용재 효율관리실 팀장은 14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형가스열병합발전 도입 가능성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열병합발전의 효율성에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 등으로 보급이 미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팀장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열원으로 전기를 발전시켜 난방 등에 사용하는 소형열병합발전 등 분산형 발전시설 현안이 한국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5.7%에 불과,

30%를 웃도는 핀란드나 덴마크 등에 비해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승화 연구원은 "난방방식 교체를 고려 중인 전체 전용면적 44만3천769㎡의 대전 엑스포 아파트 4천여세대를 대상으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에서 열린 '소형가스열병합발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가장 컸다'며 보급 확대를 주장했다.

연간 에너지 절감액은 중앙난방 방식 3억3천400만원, 지역난방 방식 5억9천400만원, 개별난방 방식 4억6천400만원인 반면 소형열병합발전의 경우 약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청 개설

양동 商人대학 인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이 개설한 광주 양동북계상사 상인대학이 시장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청과 양동북계상사는 상인들에게 새로운 마케팅기법을 전수해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광주에서는

처음 지난달 28일 상인대학을 개설했다. 상인대학에는 예상외로 많은 45명의 상인이 수강신청을 했으며 특히 청장년 상인들은 내년엔 청장년만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개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은 기본·심화·프로 등 3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들 수강생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된 기본과정을 마쳤고, 11~19일 심화과정과 10월 초순부터 일주일간 프로과정을 이수하면 졸업하게 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설운도 오늘 출연



부킹전국 100%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